

OECC

'2000학회를 다녀와서

구현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기술 연구센터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OECC '2000) 학술회의는 일본의 Chiba시 Makuhari Messe에서 7월 10일에서 14일까지 개최되었다. 7월의 일본은 조금 더운 한국의 여름을 연상케 하는데, 학회가 개최된 Nippon Convention Center는 해안가 근처에 위치해서인지 건물 밖을 걸어 다닐 때면 바다냄새와 습한 기운이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쳐갔다.

OECC는 전자정보통신공학분과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학회이며, InterOpto 2000전시회(International optoelectronics Exhibition 2000)가 학회일정에 맞춰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동행하신 박 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해가 갈수록 학회와 전시회는 스케일이 커지고 있다고 하셨다.

올해에 OECC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초청논문, 일반논문 및 포스터 논문, Post-deadline 논문은 약 350편에 달한다. 이러한 발표 논문들을 주제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WDM이나 TDM등 광통신에 관련된 소자이고, (2) 반도체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 광 필터등과 관련된 주제이고, (3) 광WDM, CDMA와 관련된 기술과 네트워크에 관련된 주제이고, (4) 광 정보 전송 수단인 광섬유 및 Waveguide, 광섬유 격자 소자에 관련된 주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학회가 개최된 Nippon Convention Center는 학회에 참가한 수천명의 참가인원에 비하여 규모가 커서인지 학회기간동안 북적거린다는 인상은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션이 시작되는 강의실 안은 자리가 꽉 차 학회에 참가하신 분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한 국내 연구자들은 KAIST, K-JIST, KIST, ETRI, KT, 한국통신, 삼성,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의 소속이었으며, 많은 발표와 질문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2001년의 OECC학회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개최되는데, 더 활발한 연구와 논문발표로 많은 연구자들을 시드니에서 뵙기를 희망한다.